미8군 본사 공보실 발행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격주간지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5년 5월 첫 번째 30권 8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용산기지내 헬기 이착륙장 개장식
2사단 카투사 재분류 실시

3면 군관련 소식
304통신대대, 한국 경찰 대상 영어교육
한마디

4, 5면 부대 탐방
516인사대대

6면 영어교육 연재
Winglish.com

7면 카투사 기고문
미니카-작지만 멋진 차

8면 안녕하세요
이선영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6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미8군 군악대 공연

4월 21일 서울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시민들을 위한 한미 군악대의 음악회가 열렸다.

이 공연은 군악대가 시민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마련한 행사였다. 행사는 카투사와 미군 그리고 국군국방부 군악대가 함께 연주한 한미 친선 공연이었는데, 국방부 군악대는 미 8군 군악대가 친선의 의미로 협연을 제의하여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공연은 스코틀랜드의 전통 민요인 '고지의 대성당'으로 시작 되어, '브링 힘 홈', '마이 페이보릿 씽즈', '앤드 올댓 재즈' 등 총 11곡이 연주되었다. 모든 객석은 채워졌고 미처 좌석을 구하지 못한 일부 관객은 계단에 앉아 박수를 보내며 즐거워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미 8군 군악대의 장지훈 상병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음악으로 서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다"며, "이번 공연을 위해 다섯 번 정도 리허설을 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위해서 멋진 연주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중가요인 '아파트'를 미군과 카투사가 같이 부를 때 공연은 절정에 달하였다. 관객들은 노래가 끝난 뒤 노래를 부른 이들을 향해 갈채를 보내며 '앙코르'를 외쳤다. 마지막 순서로 동요 '올챙이'를 연주할 때 미군들이 어린 아이들을 무대 앞으로 초대하여 함께 올챙이 춤을 추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흥미를 더해주었다. 동요들을 연주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미 8군 군악대장 애론 그래프 준위는 "우리 군악대 소속 연주자들 중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몇몇 있다. 그들이 한국인들도 잘 아는 노래를 연주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여 이런 노래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이런 노래를 다른 곳에서 연주 했을 때에도 반응이 좋았었다. 하지만 오늘 관객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열광적"이라고 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끝낸 후의 소감을 밝혔다.

카투사 신문 이정우

미 8군 군악대의 모든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기립박수로 그들의 연주에 보답하고 있다.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기에 연주에 더욱 열중할 수 있었고, 우리들 스스로도 공연을 맘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매우 만족스럽고, 환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하여 연주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이 공연이 미군에 대한 편견이나 왜곡된 모습을 떠올리는 일부 한국인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일병 심영식

1-52항공대대 카투사들의 또 다른 시작

카투사 신문 김도호

환송식에서 사열한 1-52 항공대대 카투사들과 그들을 격려하는 강성룡 중령.

4월 20일 제 2지역대에 위치한 K-16 체육관에서는 1-52 항공대대 소속 카투사들의 환송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1-52 항공대대가 알래스카로 이동하면서 이곳에서 근무하던 카투사들이 전국 각지의 타부대로 재보직되어, 그동안 함께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환송식은 미 17항공여단장 데이비드 아브라모비츠 대령, 2지역대장 강성룡 중령과 대대장 프레드 만조 중령 등 양국 지휘관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52 항공대대는 항공부대 재편성 계획의 일환으로 1996년 2월 K-16에서 재창설된 이래 우수 항공부대 상, 우수 전투력 상 등을 수상하며 한반도의 전쟁억지력 임무 수행에 크게 공헌하였다.

만조 대대장은 "그들은 단순히 카투사가 아닌 친구와 같은 존재였으며, 한미 동맹 강화를 몸소 실천하였다. 카투사들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는 그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후, 경례를 함으로써 떠나는 그들에게 예를 표했다.

앞으로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게 될 각 카투사의 이름이 모두 호명되는 가운데 아브라모비츠 대령은 부대원들의 뛰어난 역량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한국군지원단을 대표하여 강중령은 대대장을 포함한 1-52항공대대 지휘관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강중령은 모든 식순을 마치기에 앞서 "그동안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알래스카로 돌아가는 부대원들에게 감사한다. 오늘 이후로 카투사들은 새로운 부대에서 준비된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52항공대대원들을 독려했고,

2면에 계속...

용산기지내 헬기 이착륙장 개장식

서울 용산 미군기지내의 헬기 이착륙장 H-208이 종전 이촌역 앞 용산기지 17번 게이트 부근에서 사우스 포스트의 커리어필드 하우스 부근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일, 새로운 헬기 이착륙장의 개장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 행사가 있었다.

미측은 이곳에 들어서게 될 한국국립박물관에 추가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용산기지의 헬기 이착륙장을 5월 1일까지 이전하도록 되어있었다. 이번 테이프 커팅은 이러한 한미간의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된 것과 더불어 새롭게 이전한 헬기 이착륙장, H-264의 성공적인 완성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기존 헬기 이착륙장은 1984년 이래 현재까지 수 많은 헬기들이 이착륙하며 60,000건에 달하는 공무수행 및 3500여건에 달하는 응급후송 임무를 수행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임무들을 새로 완공된 H-264가 대신할 것이다.

카투사 신문 이정우

지난 5월 2일 완공된 헬기 이착륙장 H-264의 개장식에서 여러 군 관계자와 민간기업 시공자 대표들이 테이프 절단식을 하고 있다.

테이프 컷팅에는 2지역대 사령관인 티모시 맥널티 대령, 제6 기병 사령관인 피터 포어맨 대령, 제 17항공여단 사령관 데이비드 아브라모비츠 대령을 포함한 여덟 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2년 전 처음 연대장으로 부임했을 때, H-208의 이전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나는 시공자들과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주길 원했고 그들은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을 시작으로 행사에 대한 소견을 밝힌 아브라모비츠 대령은 "헬기 이착륙장의 개장은 한미동맹이 이룩해 낸 수많은 쾌거중 하나"라고 시공자들과 관계자들의 공로를 치하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H-264 헬기 이착륙장 공사의 완공은 한국과 미국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멋진 곳이 바로 그 결실입니다."

H-264 헬기 이착륙장은 몇 가지 마무리 과정을 거쳐서 오는 11월쯤에 완벽하게 완료될 예정이다. 이 곳은 주한미군, 미8군 그리고 한국군이 사용하게된다. ■

일병 이정우

2사단 카투사 재분류 실시

2사단 공보실 일병 고상순

캠프 호비 극장에서 공병여단 본부중대 카투사의 재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캠프 호비에 위치한 극장에서 카투사들의 재분류가 이루어졌다. 미 2사단의 재편성으로 1-15 포병대대, 공병여단 본부중대, TF 2-72 전차대대, 항공여단 본부중대, 50부교중대, 2헌병중대가 영향을 받았으며 카투사 장병 135명이 재분류를 받았다.

재분류 시작 전부터 카투사 장병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걱정, 함께 하였던 동료들과의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곳에의 복무에 대한 기대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50부교중대 미군 인사과 이효재 상병은 "50 부교중대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으며, 캠프 라과디아 역시 5월중에 폐쇄가 된다. 오랜 기간 동안 일 한 곳이라 정이 들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 아쉽다"고 말하며 "약간 초조하다. 그리고 예전 중대원과 같은 부대로 배치 받으면 더 힘이 될 것 같다. 어느 소속 부대로 옮겨가든, 남은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재분류가 시작되자, 카투사 장병들은 화면에 집중하며 앞으로 자신들이 일하게 될 부대를 지켜보았다. 단본부 부관과장 김기환 대위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카투사 재분류는 무작위 공개전산분류로 카투사 교육대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정성을 우선으로 두었다. 카투사 교육대 부대분류 때와 동일하게 카투사들이 직접 난수를 입력할 기회와 시범 횟수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장병들이 현재 부여 받은 군사특기를 최대한 고려하되, 특기별 초과되는 인원은 동일 직군 부류 후 통합 재분류를 하며, 공석직위 부족 시에는 원점에서 재분류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카투사 장병은 그 점을 고려하여, 카투사 인사과로 재분류를 받게 되었다.

이번 분류에 1-15포병대대는 9명, 50부교중대는 18명, 공병여단 본부중대는 14명, 2헌병중대는 36명 그리고 TF 2-72전차대대는 56명이 재분류를 받았다.

재분류를 받은 1-9 보병대대 델타중대의 김주열 일병은 "BTB 본부중대로 가게 되었다. 보직도 전투병에서 통신병으로 바뀌었다. 자대와 보직은 바뀌었지만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였다. 새로운 자대와 보직이지만, 카투사 장병들의 꾸준한 활약이 기대된다. ■

2사단 공보실 일병 고상순

1면에 이어서...

대대 구호인 'Flying Dragons'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군인으로서 보여준 좋은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재배치 받은 후에도 새로운 환경에서 전과 같은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

상병 김도호

카투사 신문은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관변 미국방성 공인 신문으로, 1회 4,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다.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국 정부, 국방성, 육군성, 미8군이나 대한민국 육군의 그것은 아니다. 카투사 신문은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된다.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C-2330B 이며 전화번호는 723-4681이다.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내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do.ho.kim@usfk.korea.army.mil이다.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벨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김덕곤
미8군 공보실장
중령 토마스 이 버지나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대위 이세희
편집장
상병 김도호
기자
상병 최의진
일병 심영식
일병 이정우

Eighth U.S. Army Commander
Lt. Gen.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 Col. Thomas E. Budzyna
Command Information OIC
Capt. Kone C. Faulkner
Editor
Cpl. Kim, Do-ho
Staff Writers
Cpl. Choi, Eui-jin
Pfc. Shim, Yung-sik
Pfc. Lee, Jung-woo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Eighth U.S. Army, or Republic of Korea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4,0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Bldg. C-2330B,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4681.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do.ho.kim@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카투사 신문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해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관련 소식 외에도,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은 멋진 추억이나 아름다운 이야기, 전하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전화: DSN 723-4681

E-mail: do.ho.kim@usfk.korea.army.mil

304 통신대대, 한국 경찰 대상 영어교육

제 2지역대 캠프 콜번에 주둔하는 304 통신대대는 지난 4월 29일 목요일, 부대 내 대대원 교육실에서 광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25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영어교육은 2005년 3월 초에 처음 시도한 304 통신대대의 영어교육이 경찰 및 주변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여 동안 시행되고 있다. 교육은 304 통신대대 소속 이유호 상병과 나상일 상병, 그리고 카투사들의 영어교육을 도와주는 존스 게리 중위와 리틀 브라이언 하사 등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들은 다소 딱딱하여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는 문법이나 독해 위주의 영어교육보다는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영어교육 자료로 삼아 경찰관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광주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창수씨는 카투사들과 미군들의 영어교육이 "지금까지 해온 영어공부의 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는 한 계속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사진들의 친절하고 성실한 가르침에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경찰 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한 많은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또 다른 광주 경찰서 직원인 이현주씨는 선생님과 학생이 부담 없이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 수업의 최고 장점으로 꼽았다. 이씨는 카투사와 미군들의 영어교육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히 유익했다고 덧붙였다.

"사실 언어라는 것이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 그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버리면 학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책으로만 공부한 영어지식들이라 잘못 사용될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한국인 선생님과 외국인 선생님이 적절하게 교정을 해 주셨던 것이 이 영어교육의 큰 장점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통신여단 예하 304 통신대대 소속 이유호 상병은 "카투사의 역할을 또 다른 측면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고 영어교육에 관한 생각을 말했다.

"경찰관들의 활발한 참여는 저와 미군들이 서로 도와가며 더욱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이러한 열의를 가지고 경찰관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다 하시는데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고자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 힘이 났다"고 교육 소감을 말한 1통신여단 304 통신 대대 소속 브라이언 하사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천천히 말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등 많은 배려를 해주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배려 없이도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는 것은 눈에 띄는 발전"이라며 뿌듯한 마음을 표현했다. 끝으로 브라이언 하사는 이러한 영어교육이 자신과 한미 양국에 가져다 주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지역사회로 무언가를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미간의 우정'이라는 중요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바로 좋은 이웃 프로그램으로서의 영어교육 시간을 더욱 뜻 깊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

일병 이정우

제공사진

대대원 교육실에서 영어교육을 하고있는 이유호 상병과 크리스토퍼 스미터스 상병.

카투사 한마디

군생활을 통해 얻고 싶은 것

8인행사 516인사대대 알파 파견대
유철희 상병

무엇보다 군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들과의 기억을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선임병들, 동기들, 그리고 후임병들과 전역을 한 후에도 연락을 하고 지낼 수 있을 정도의 돈독한 인간관계를 이어 가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 자리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군대 시절의 추억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을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8인행사 516인사대대 본부 파견대
양재헌 일병

무엇보다도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체력과 자신감을 길러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밖에도 부대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제게 부족한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역하고서 군에서 허송세월하였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인행사 516인사대대 알파 파견대
윤광호 일병

일단 강인한 체력을 기르는 것과 카투사의 장점인 영어실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이병 때부터 꾸준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강한 체력이나 영어실력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력까지 얻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제대한 후에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8인행사 516인사대대 제1신병보충대
박정남 병장

처음 이병 때는 강인한 체력과 영어실력을 얻고 싶었는데, 병장이 된 지금 느끼는 것은 그런 가시적인 것보다 인내력, 상황판단 능력 그리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 등의 정신적인 측면의 것을 얻어 나가고자 합니다. 영어나 체력 등은, 그다지 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맡은 일과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나가는 것이지만, 정신적인 것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16인사대대

봄이 찾아오기가 무섭게 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날씨에도 조국을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을 카투사 장병들을 생각하며 기자는 이번 부대탐방의 주인공 516인사대대를 찾아갔다.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 위치한 516인사대대는 1944년 미국 북 캐롤라이나에서 516보충중대로 출발하였다. 1951년 일본, 1972년 베트남 등에서 활약하다 1987년 주한미군으로 편입, 1995년에는 516인사대대로 재편성되어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알파 파견대, 브라보 파견대, 찰리 파견대, 델타 파견대, 제 1신병보충대로 구성되어진 516인사대대는 그 중 알파, 델타 파견대, 제 1신병보충대만이 용산기지에 위치해 있고, 예하의 브라보, 찰리 파견대는 평택과 대구에서 각 지역의 할당된 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델타 중대와 제 1신병보충대는 516인사대대 중 비교적 독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델타 중대원들은 용산 중앙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용산 지역 내의 여러 부대들에 우편물들을 분류, 배포하는 일을 수행하며 제 1신병보충대는 한국으로 배치를 받아 전입 오는 미군들을 인천공항과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맞이하여 적절한 수속을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8인사행정사령부(이하 8인행사)의 예하부대로 있는 516인사대대는 다가오는 6월, 8인행사가 해체되면서 19전구지원사령부 소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대대원들과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자 516인사대대 대대선임병장 김남언 병장은 "업무 외 시간에는 다가오는 카투사 주간에 선보일 장기자랑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며 부대 근황을 말하고 "4월에는 중대급으로 진행되는 야전훈련연습(Field Training Exercise)에 참가하였다"며 이야기를 이었다.

"저희 516인사대대는 그 날의 업무 할당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주일간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불가능하여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이나 을지포커스렌즈는 소수의 인원만 참가합니다. 그 대신 가을에 실행하는 엑시발(Exercise Evaluation)을 준비하기 위해 그 사이 두세 번의 야전훈련연습에 참가합니다."

516인사대대 알파 파견대 유철희 상병은 "올해 같은 경우 516인사대대 소속 카투사 두 명이 지난 3월에 있었던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에 참가했다"고 말하며 "훈련에 참가하면 대구로 내려가 그 곳에 위치한 516인사대대 찰리 파견대와 같이 평소에 담당하던 일을 연장하여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4월에 실시한 야전훈련연습에서 516인사대대 세 개의 예하 중대는 각 훈련지로 이동 후 약 일주일동안 텐트에서 생활하며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훈련때 마저도 평소 업무와 훈련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유상병은 "알파 파견대의 경우 캠프 마켓으로 이동하여 약 일주일동안 그 곳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고 말하며 "하지만 훈련기간에도 평소 진행하던 업무를 훈련지로 가지고 와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우편업무를 하는 516인사대대 델타 파견대와 더불어 516인사대대 제 1신병보충대는 한국으로 전입해오는 미군들을 관리하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대이다. 516인사대대 박정남 병장이 제 1신병 보충대의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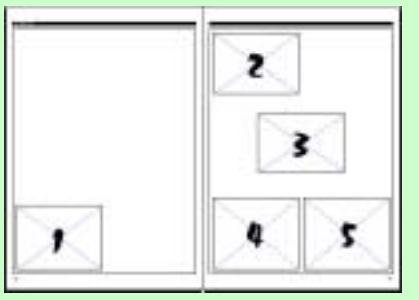
"제 1신병보충대는 24시간 근무를 2교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입해 오는 미군들의 입국 수속 및 자대배치를 책임지는 업무를 맡고 있어 제 1신병보충대에서 공항 근무를 하고 있는 카투사 여섯 명은 11일동안 연속으로 근무하고 사흘을 쉬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병장은 또 "휴가를 갔다 오거나 출장을 다녀오는 미군도 있지만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미군들이 대다수"라고 말하며 "그들이 한국 물정을 몰라 여러 에피소드들이 발생하였다"고 공항 근무를 하면서 생긴 이야기를 해주었다.

"미군들이 처음 인천 공항에 도착하여 저희를 못 만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미군들 중 바가지를 씌우는 택시기사들에게 사기를 당해 용산까지 오는데 2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고, 용산으로 가야하는데 오산으로 가서 불편을 겪는 결코 웃지 못할 일들도 종종 생깁니다. 그런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저희 제 1신병보충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16인사대대는 8인행사 본부중대와 175경리단과 함께 정신훈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이 정신훈련 교육은 516인사대대, 8인행사 본부중대, 175경리단의 인원이 돌아가며 단본부에서 내려온 주제를 토대로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발표가 끝나면 그 주제에 대한 토론이 시작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고의적으로 입대를 회피한 사람들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고 한다.

제공사진



1. 8인행사 모터풀에서 제네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는 유철희 상병의 모습.
2. 본부파견대 이종호 일병이 사무실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3. 516인사대대원들이 서울 소재의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4. 516인사대대 군수과 책임하사관 변사웅 중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5. 본부파견대 김동현 상병이 인사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카투사 신문 최의진

516인사대대원들은 근무시간 외 주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자신의 대대 선임병장 업무의 한 부분이라며 김병장은 516 인사대대가 맡고 있는 남산, 덕수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 봉사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주말을 이용하여 부대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인데 대대로 516 인사대대 대대선임병장의 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직접 교육을 나가보았습니다. 제가 집이 대구에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갈 수 없어 주말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여 서울에 대해 좀 알자는 취지도 있었고 봉사활동을 하면 마음도 뿌듯하고, 기분도 좋아져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대대원들이 돌아가며 봉사를 나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박병장은 "매주 남산, 덕수 초등학교에 교육을 나가게 되는데 남산 초등학교는 미군과 카투사 각각 열 명이, 덕수 초등학교의 경우 열두 명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다수의 초등반을 한 시간씩 교육한다"고 한다.

516인사대대는 또 8인행사 군종과에서 주관하는 고아원 방문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아원에 방문하여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부대로 초대하여 여러 시설물들을 즐긴다고 한다. 김병장은 "고아원 아이들을 대대 훈련 중에도 초대하여 견학시키기도 하고 5월초에는 고아원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놀러갈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공사진

516인사대대는 부대원들 간의 전우애를 높이고 친목을 쌓는 여러 크고 작은 행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516인사대대 알파파견대 김진구 상병은 "미군 행정부대의 창립을 기념하는 행사로 19세기말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AG (Adjutant General) Ball 이라는 행사를 매년 모 호텔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카투사들과 미군들이 참여하여 식사도 하고 연예인 공연도 관람하는 등 부대원들 간의 단합심을 쌓을 수 있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 10월에 있는 516 인사대대 창립기념일에는 모처럼 모든 업무를 떠나 축구, 농구, 줄다리기 등 운동경기를 하며 친목을 쌓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이런 공식적인 행사 외에도 516 인사대대의 카투사들은 선후임들 간의 근무 외 시간의 회식은 물론, 미군들과도 돈독한 우정을 쌓고 있었다. 김병장은 "최근에 개최한 서울 모터쇼를 후임들과 미군들과 같이 구경하러 가는 등 근무시간 외에도 만나는 자리를 자주 갖는 편"이라고 말하며 또 박병장은 "516 인사대대 카투사들과 미군들이 모여 만든 밴드가 있는데 조만간 압구정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의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등 미군들과의 사이는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516인사대대는 선후임간의 전우애 또한 돈독했는데 대대 인원들끼리 카투사 리그라는 이름의 체육대회를 만들어 중대간 여러 경기를 한다고 한다. 또 516 인사대대 제 1 신병보충대 같은 경우 한국 공휴일에는 언제나 강가나 산을 찾아 등산을 간다고 한다. 최근에는 부대원들과 관악산으로 등산을 갔었다는 박병장은 "2교대로 오전, 오후시간을 나누어 근무하는 제 1 신병보충대의 특성상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아 업무가 없는 날 부대원들과 자주 만남을 갖는다"고 말하며 "몸도 건강해지고 친목도 쌓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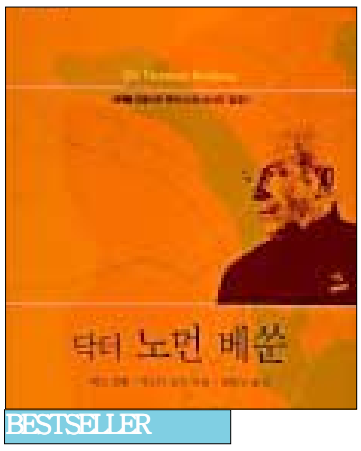
끝으로 516인사대대 군수과 책임하사관 변사웅 중사가 전국에 있는 카투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 때문에 많이 애를 먹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사람들과 생활한다는 것은 카투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 2년의 군 생활 동안 자신의 영어 능력 향상에 힘써 사회로 나가는데 있어서의 준비 조건을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상병 최의진

카투사 신문 최의진

카투사 신문 최의진



닥터 노먼 베쑨

테드 알렌 / 실천 문학사

아무런 목표 없이 표류하듯 하루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치열한 삶에 대한 애정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노먼 베쑨. 자신의 인생을 한 번 포기해 보았기에 그것에 대한 애정을 더욱 격렬하게 표현 해내었고 우리에게 "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의 철학적 질문을 더욱 강하게 던져준다. 이 책은 ' 무기력 ' 이라는 전 세계적인 고질병에 대한 일침을 놓음으로써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

메리엄 웹스터 온라인

www.m-w.com

통역 및 번역 업무를 자주하는 카투사들, 하지만 아무리 영어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원어민이 아닌 이상 수십만에 달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모두 알 수는 없다. 게다가 한 장의 자료에서 모르는 단어가 수십 개씩 나온다면 사전으로 단어를 찾는 것을 포기할 지경에 이른다. 이럴 때 이 사이트는 위력을 발휘한다. 단어를 입력하면 단어의 어원과 상세한 설명 및 의미를 알려주고 영작에도 유용한 유사어 사전도 제공하고 있다.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Biz - Whiz

제 9 장

Winglish.com

***Bite the dust**

패하다 (운동경기, 시합등에서)넘어져서 흙에 얼굴을 쳐 박다.

Dialogue

A : Did you go see the track and field events yesterday?
B : Yes, it was fantastic.
A : How was Donald in the high jump competition?
B : He bit the dust.

A: 어제 육상경기 구경했어?
B: 응 , 재밌었어
A: 높이뛰기에 참가한 도날드 어땠어?
B: 깨졌어.

Key Phrases

bite : 깨물다, (뭔가가) 입 속으로 들어가다
bit : bite 의 과거형
dust : 먼지, 흙
fantastic : 훌륭한, 대단한
high jump : 높이뛰기 (육상경기)
competition : 경기, 시합
track and field events : 육상경기

***No pain, no gain.**

고생 끝에 낙이 온다. (苦盡甘來)고생과 노력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Dialogue

A : Honey, what are you doing? It's only 4:30.
B : I'm going to go jogging because I want to lose weight.
A : But you know it's too early.
B : No pain, no gain.

A: 여보 . 뭐해? 4 시 반 밖에 안됐어.
B: 조깅해서 살빼야야.
A: 이 꼭두새벽부터?
B: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Key Phrases

pain : 고생, 고통, 어려움
gain : 얻음, 획득함
jog : 조깅하다
lose weight : 체중 감량하다
early : 이른, 일찍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겉만 보고 판단하지마.책 표지만 보지말고 속내용을 보세요.

Dialogue

A : Have you met our new teacher? He looks very weak and short.
B :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He is a martial arts expert.
A : Oh really? I didn't know that.

A: 새로 부임한 선생님 봤어? 키도 작고 되게 약해보이더라.
B: 겉만 보고 판단하지마, 무술 고단자래.
A: 정말이야? 몰랐는걸.

Key Phrases

judge : 판단하다, 평가하다
cover : 겉 표지, 외양
weak : 심신이 약한, 병약한
short : 왜소한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martial arts : 태권도등 (무술)
expert : 전문가
martial arts expert : 무술고단자

***Look before you leap.**

심사숙고 하세요.뛰어내리기 전에 밑에 뭐가 있나 잘 살펴봐요.

Dialogue

A: Did you read today's paper? Stock prices rocketed.
B: Yes, I did. So I will invest all of my money in stocks.
A: Cool down. Look before you leap.

A: 오늘신문 봤어? 주가가 폭등했어.
B: 봤어. 그래서 내 전재산을 주식에 투자할거야.
A: 진정해, 심사 숙고하란 말이야

Key Phrases

leap : 뛰어내리다
stock : 주식
rocket : 로켓, 치솟다
Cool down! : 진정해 !
invest money in ~ : ~ 에 투자하다

***Money does not grow on trees.**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마.돈은 나무에서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다.

Dialogue

A: : John, you have to look for a job.
B: No problem mom. I got a lottery ticket and if I win I will be rich .
A: Listen to me. Money does not grow on trees.

A: 존아, 일자리를 찾아봐야지.
B: 엄마,걱정 마세요 . 복권 한 장 샀는데 당첨되면 부자가 될 거에요.
A: 내 말 들어봐, 돈이 그리 쉽게 생기는 게 아냐.

Key Phrases

mom : 엄마
lottery ticket : 복권
rich (quick) : 일확천금을 벌다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Dialogue

The recent hurricane hit a small town full blast and left Tom and Susan homeless.

Susan : Honey, what are we going to do?
Tom : Well, you know that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We' ll build a makeshift shelter until help arrives.
Susan : Good idea. Let' s do it.

강한 허리케인 이 한 마을 을 덮쳐서 그곳에 사는 톰과 수잔은 졸지에 집을 잃었다.

Susan : 여보 우리이제 어떻게 살죠?
Tom : 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 했어. 구조의 손길이 올때까지 임시방편으로 거처를 만들자구.
Susan : 좋은 생각 이에요. 그렇게 해요.

Key Phrases

invention : 발명
hurricane : 서인도제도에서 불어오는 폭풍 (특히 미국에 피해를 줌)
full blast : 최고로 강한 바람
makeshift : 임시방편의
shelter : 대피소

■ 카투사 기고문

미니카 - 작지만 멋진 차

-1 . 폴크스바겐 비틀

차를 무척 좋아하는 관계로 길거리를 지나다 멋진 차를 보면 눈길을 주게 된다. 그런데, 멋진 스포츠카라서, 아니면 무척 비싼 외제차라서 눈길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특이한 모양에 앙증맞은 생김새를 보면 기분마저 좋아지는 차들도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폴크스바겐 뉴 비틀이나 BMW의 미니 같은 차를 보면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생김새에 한 대 갖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요즘 나오는 이런 복고풍-retro 스타일-차는 뉴 비틀이 2000cc, 미니가 1600cc로 결코 작지도 않고, 외제차라서 값도 비싸지만, 오리지널 모델인 비틀과 미니는 우리나라의 프라이드처럼 경제적이고, 누구나 탈 수 있는 작은 차였다.

미니카(Mini Car)는 경차(輕車) 또는 국민차(國民車)라고 부른다. 일본의 경차는 1950년대 360CC 엔진을 가진 차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기준에 맞춘 차'로 자리를 잡은 것이고 '국민차'의 개념은 독일 히틀러가 창안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누구나 부담 없이 가질 수 있는 차'로 이 계획에 의해 태어난 것이 2천만대 이상 생산된 VW 비틀(Beetle)이다.

경차를 유럽에서는 'Mini Car' 또는 'Micro Car'로 불리며 리터카 즉 1,000CC급 내외의 차량으로 유럽의 국민성과 자동차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대중차로서 자리를 잡았다. 미니카의 개념은 각 나라마다 다르나 유럽인들은 실용성과 합리성에 그 기초를 둔다. 주차하기 편하고 유지비가 적은 차, 시내의 좁은 도로에서 주행하기 좋고 단거리용 업무나 쇼핑에 적합한 '시티카'나 '세컨드카', '퍼스널카'로서 자동차 생활에 미니카는 하나의 영역으로 차지하고 있다.

미니카를 많이 사용하는 유럽과 일본에서는 대체로 판매 순위 10위권 내에 대부분이 미니카 혹은 소형차일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경차는 그다지 종류가 많지 않지만, 일본, 유럽의 경우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주요 회사에서 다양한 모델을 내놓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럽 미니카 몇 모델을 소개한다.

제공사진

폴크스바겐 뉴 비틀 카브리올레. BMW 미니와 함께 인기를 모으고 있는 복고풍 스타일 자동차.

폴크스바겐 비틀

1948년부터 1978년까지 30년 동안 무려 2천만대를 생산한 20세기 후반 최고의 베스트셀링 카.

제공사진

폴크스바겐 비틀. 2차대전 이후 지금까지 2200만대 넘게 팔린 최고의 베스트셀러.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는 세계대전을 일으켜 세계사에 독재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고속도로 아우토반과 국민차 "폴크스바겐"(국민의 차란 뜻이다)을 만들어내 독일 국민에게 공헌한 측면도 있다.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독일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차의 생산을 위해 포르쉐 박사에게 "어른 두 명과 어린이 세 명이 탈 수 있는 차, 연료 1리터로 14.5km 이상을 달릴 수 있으며, 정비가 쉬운 차, 그리고 차 값은 1천 마르크 이하인 차"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939년 포르쉐 박사는 히틀러에게 우스꽝스럽게 생긴 딱정벌레 모양의 자동차를 제작하여 보여준다. 하지만, 2차 대전이 시작되어 폴크스바겐 공장 역시 군용으로 전환되어, 수륙양용 군용차 퀴벨바겐을 생산하게 된다. 그래서 독일인들의 국민차는 2차대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히틀러는 독일을 망쳤지만, 히틀러가 지시해 만든 이 차는 파괴된 독일을 짧은 시간 내에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된다.

비틀은 판매된 30년 기간동안 초기와 동일한 모양을 유지한 채 메커니즘과 편의성을 끊임없이 개선했다. 그러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모델을 바꾸기 위해 투자되는 개발비용을 절약해 값싼 차를 만들었고, 포르쉐 박사의 천재적인 기술을 밑바탕으로 설계된 소형차는 유지, 관리비를 대폭 절약해 주어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비틀의 이름은 KdF였지만, 미국시장에 들어간 후 둥근 모양새 때문에 비틀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차량의 뒤쪽에 공냉식 수평대향 1.1ℓ 엔진을 얹은 뒷바퀴 굴림차였으며, 독일에서는 1978년에 마지막으로 생산되었고 이후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계속 생산되어 총 2천 200만대의 비틀이 1990년대 후반까지 만들어 졌다. ■

회계감사과 상병 문제필

MOVIE

댄서의 순정

감독: 박영훈

주연:문근영, 박건형

연길에서 출발하여 한국, 인천으로 향하는 훼리 안. 인천항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설렘이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가는 채린(문근영 분). 배가 멈추면 채린은 '조선자치주 댄스선수권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해왔던 언니의 역할을 대신 해내어야 한다. 한편 최고의 선수로 촉망 받았던 영새(박건형 분)는 2년간 포기하고 있었던 자신의 꿈을 다시 찾겠다고 다짐하는데...

TOP CHARTS

겁쟁이

Buzz

2.Superstar/ 쥬얼리
3.잘 지내나요 / 성시경
4.살다가 /SG 워너비
5.안부 / 별
6.그리움을 사랑한 가시나무/테이
7.Mr. flower/ 조성모
8.사랑인걸 / 모세
9.버려도 버려도 / 김조한
10.눈물잔 / 박상민
11.No pain no gain/이재원
12.가면 / 강타
13.꽃피는 봄이오면/BMK

이/선/영

스피드에 대한 갈망. 출퇴근 시간만 되면 꼼짝 없이 도로 위에 갇혀버리게 되는 도시 사람들이라면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도로위를 마음대로 누비는 드라이빙을 언제나 꿈꾸고 있을 것이다. 기자는 최근 레이싱 모델 중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선영씨를 만나기 위해 일산에서 진행중인 '서울 모터쇼 2005' 행사장을 찾았다. 수 많은 자동차들과 화려한 레이싱 모델들, 이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를 보며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이선영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자 또한 레이싱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었다.

기자: 안녕하세요, 이선영씨. 자기소개와 최근 근황 부탁드립니다.

선영: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레이싱 모델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송국 일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가지 매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별히 자랑할 만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으신가요?

선영: 제가 가장 대답하기 힘든 것이 매력 포인트에요(웃음). 외모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편한 얼굴이여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자: 레이싱 모델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

레이싱 모델은 레이싱 경기에서 자동차나 소속된 팀의 홍보를 맡는 역할을 합니다. 의상에 특정 업체의 광고를 집어넣어 회사의 이미지를 광고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레이싱 모델들의 건강함, 밝은 모습 등이 차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연결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터 스포츠와 사람들을 연결 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입니다.

기자: 레이싱 모델으로서 지녀야할 자질은 무엇이 있습니까?

선영 : 제가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사진 찍히는 것이 낯설어서 피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범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카메라에 대해서도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레이싱 모델은 홍보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모터 스포츠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주목받기 위해 레이싱 모델을 한다면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기자: 이상형이 있다면 어떤 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선영 : 일단 남자답고, 자상하며 이해심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보다는 기본이 되어있고 그 사람의 장점을 제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만약 남자 친구가 군인이라면 해주고 싶은 것은?

선영 : 제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세 가지가 남자 친구 군대 보내주기, 편지 쓰기,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친구는 없었습니다. 만일, 제 남자 친구가 군인이라면 영양제 같은 것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카투사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선영 : 외국인과 같이 근무하시잖아요. 문화적 차이가 있을것인데 그들과 잘 지내시고, 우리나라 홍보 또한 잘 해주시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셨으면 합니다. 카투사들은 우수한 인력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레이싱 모델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일병 이정우

사진: 카투사 신문 심영식, 8th Army PAO Spc. Daniel Love